



대학특성화의 의미와 방향¹⁾

이 현 청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I. 대학 환경의 변화

21세기 대학 변화 중의 하나는 대학의 자율화와 특성화이다. 더구나 21세기는 모든 국가로 하여금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와 국가를 가장 효율적인 '지식의 웹(knowledge web)'으로 구축하는 데 정성을 쏟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대학경쟁력을 통한 '창의형 교육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해 보다 합리적인 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한 마디로 지식기반사회의 특성에 맞는 교육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국가발전 전략의 큰 틀은 사회와 국가 전체의 구도 속에서 자리 매김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여러 사회 기관 중에서도 지식창출과 응용 그리고 재생산을 그 역할로 하는 고등교육 체제의 경쟁력 제고가 우선이 되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발전방향은 지식강국을 위한 기본 여건과 활용 체제를 위한 패러다임의 설정, 그리고 지식유통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연계 체제가 그 과제들이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점에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대학개혁 방안은 지식의 창출과 재생산 구조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일이며, 그 전제조건은 대학의 자율화(autonomy)와 특성화, 그리고 이러한 전략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책무성(accountability)이라고 볼 수 있다. 환경변화에 따라 대학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주요한 핵심적 과제인 특성화와 자율화 문제만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II. 대학특성화와 기능 분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대학 운영 체제는 그 특징 면에서 볼 때 대학성장과 발전과정에서

1) 이 논문은 대교협 하계 총장세미나(2005.6.30) 발표 원고를 수정·보완한 글이다.

파생된 긍정적인 측면과 어두운 면면을 다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학과 증설과 학생 증원에 신실 목표를 두어 왔고 대규모 대학의 경우에는 이공계 위주의 발전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소규모 대학은 대규모 대학으로 성장하려는 대규모화 전략 체제에 집착해 왔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들은 그 발전과정에서 연구중심 대학의 이상과 특정대학의 모델을 추구하고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성이나 전략화보다는 '크고 유명한 일류지상주의'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중심사고적 대학관(research oriented university monopoly)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203개 대학의 행정 체제적 특성을 자세히 보면 일면 소규모형 종합대학 지향 체제, 대규모 대학 체제, 그리고 연구중심과 대학원 지향 체제로 대별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규모나 지향 체제가 어떠한지 우리나라 대학들의 이러한 '성장 지향 체제'는 환경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진 현시점에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국립과 사립간, 대규모와 소규모간, 대학의 설립목적간에 따라서 개혁이 불가피하고, 종래와 같은 성장 지향적 체제로부터 '질 관리 경쟁 체제'와 '특성화 체제'로의 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대학 체제로의 변화를 위한 주요 내용은 '학생고객체제(consumer-oriented system)'라 할 수 있는 열린 개방 체제와 전략화 체제, 효율적인 정원 체제, 자율학사관리

체제, 그리고 자율입학전형 체제 등의 특성이 되어야 한다.²⁾ 한 마디로 수혜자가 선호하는 대학 행정 체제로의 변화를 요구받게 된다. 흔히 컴퓨터나 매스미디어 체제를 활용하여 지능대학화 된 '지능형 대학(smart college)'이라든지 캠퍼스 체제와 대학학습망이라 할 수 있는 대학망(college web) 등의 다양한 대학 체제 모형으로의 재조직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재조직은 대학 경영합리화 전략들과 맞물리는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과 재구조화(restructuring)를 통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대학의 이러한 전략 체제로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학과의 재편이라 할 수 있는 특성화 중심 학문집적화 도입, 교수기법의 다양화와 관련된 혁신학습 체제, 그리고 전략적 대학 경영 기법을 활용한 종합적인 전략 모형(CSP : Comprehensive Strategic Planning model), 전략적 대학경영 모형(SCM : Strategic College Management), 총체적 질 관리 모형(TQM : Total Quality Management), 그리고 사회 인문과학 중점 체제 모형(GET : General Education Tower) 등의 도입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³⁾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학부제가 기형적인 형태로 시행 중에 있고, 일부 대학에서 진행 중인 대학경영 효율화 체제나 연구중심 체제에 대한 논의도 교육적 경영이나 경제주의적 경영이나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러한 경영전략의 무작정 도입이나 이식은 결코 이상적이라 볼 수 없으며, 흔히 기업체에서 널리 보편

2) 이현청(1997). 21세기를 대비한 대학의 생존 전략, 서울; 한양대출판원, 112-114.

3) 이현청(2001). 21세기와 함께하는 대학, 서울; 민음사, 150-153.

화되고 있는 리엔지니어링, 벤치마킹 등도 교육적 체제에 응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적 의사결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학교육은 최고의 지성을 기르는 ‘인간화(human processing) 체제’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학사행정 체제의 변화를 꾀할 때 필요한 일은 산업적 결정도 필요하지만 교육적 결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개별대학의 특성과 여건에 기초한 특성화된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또 하나는 질 관리 체제와 교육서비스 체제의 특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특성화 체제로의 변화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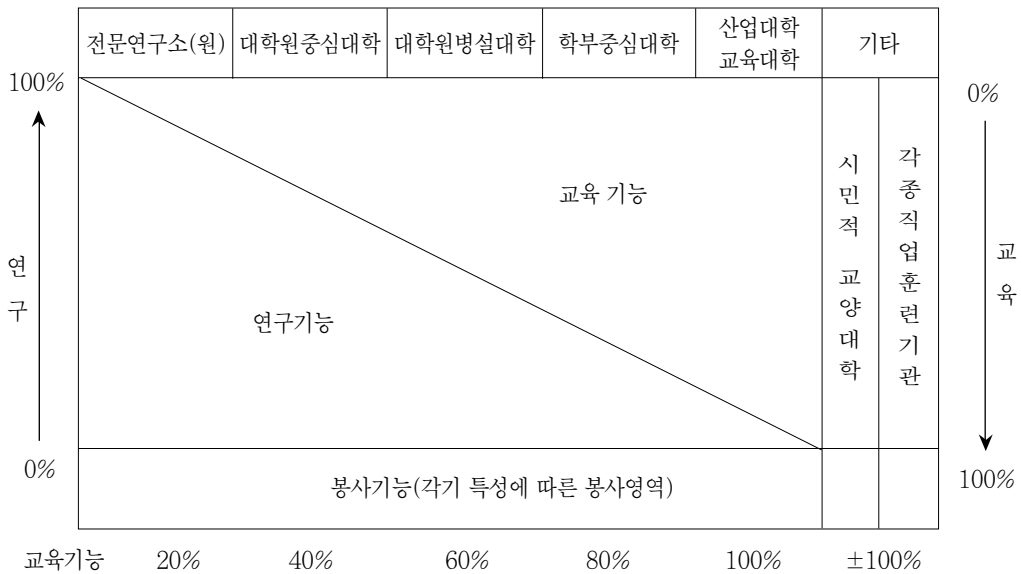
- ① 학부중심 체제와 대학원중심 체제 혹은 학부와 대학원 병행 체제로의 선택
- ② 인문사회중심 체제와 이공중심 체제 또

는 종합적 체제의 선택

- ③ 캠퍼스중심 정형 체제와 캠퍼스 외 체제, 그리고 병합 체제의 선택
- ④ 자격 중심 체제와 산학 협동형 체제의 선택, 그리고 평생 교육 체제의 선택
- ⑤ 내국형 수요자 체제와 글로벌형 체제의 전략적 선택, 그리고 다국형 체제의 선택 등이 이루어진 다음 수요자중심 체제로의 재편을 위한 세부사항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대학 운영 체제 변화의 과제는 특성화, 다양화, 자율화, 합리화 등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특성화를 위한 전제는 기능과 체제 면에서는 다양화를 추구하고 커리큘럼과 학사 운영에 있어서는 특성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본 전제 속에는 ‘학생소

〈표 1〉 대학기능으로 본 대학특성화의 횡적 모형



* 출처 : 이현청(1997). pp.114

비자중심'과 '자체 질 관리 체제' 등의 교육관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다분히 '개방대학 체제'와 '수평·수직적 연계 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대학 기능으로 본 특성화의 경우도 특성화된 연구소 중심 체제로부터 산업인력 배출에 이르는 산업대학 모델이나 교원양성기관인 교육대학의 기능에 따라 연구영역이 차지하고 있는 기능이나 교육영역이 차지하는 기능의 비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체제와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제 위에서 특성화가 논의되어야 하고, 특성화의 결정 요인들 또한 개별대학 차원에서 전략화해야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특성화와 관련된 교육산업적 논리나 상아탑적 교육관 간의 논리, 기초학문 육성과 응용학문 우선정책, 대학간 경쟁논리와 협력 철학 간의 쟁점도 적지 않고 대학인의 자세 변화와 관련된 논의도 많다. 우선 대학 유형별 특성화의 모형은 미국의 카네기재단에서 구분하듯 7개 유형화도 가능할 것이며 단순하게는 연구중심, 직업중심, 학문학부중심, 전문학부중심 등의 구분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특성화의 모형이 어떤 전제이든 대학 자율성의 전제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학 스스로의 자기 정체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최소한의 정부 정책적 의지 차원 이외에는 특성화의 추진을 대학에 전적으로 맡겨야 할 것이다. 우선 대학특성화의 전략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첫째, 필요에 따라서는 학문영역간 특성을 고려하되, 학과의 통·폐합과 계열화 혹은 학부제로의 전환이나 특성화 계열화 등이 필요하다. 한 예로서 현재는 통·폐합에 의한

많은 학과가 감소되긴 하였으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우리나라 학과 편제의 현실은 세계적 경향이라 할 수 있는 학문의 학제적 경향이나 학부 교육의 광역화 추세, 그리고 대학원 교육 강화와 배치된다. 따라서 대학특성화에서 첫째 고려되어야 할 점은 내부적 개혁이라 할 수 있는 학과간, 학문간, 계열간의 연계 체제와 열린 체제의 구축이다.

둘째, 대학의 기능으로 논의되고 있는 3대 영역인 교육, 연구, 봉사의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대학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과업이 필요하다. 예컨대 수평적 기능 분화에 따라 대학원 중심, 준 대학원 중심, 대학원 병설 대학으로 구분하는 등의 기본 기능에 따른 특성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과과정의 운영과 학점배정 면에서 특성화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학점배정의 차등화와 교과과정의 다양한 배열에 의해 단계적으로 전공영역과 커리큘럼, 그리고 학사 운영 체제 전반에 걸쳐 대학의 특성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넷째, 대학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개별대학이 처한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볼 수 있는 고객 중심 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종래의 university나 multiversity의 고정적 관념에서 탈피하여 대학의 규모와 장·단기 발전 목표에 따라서는 'andraversity', 'televersity', 'mega-university', 'e-unit', 'trans national university' 혹은 'u-unit' 등으로 전환하는 개혁적 사고도 필요하다.⁴⁾

4) Lee Hyun Chong(2005). Implications of WTO/GATS on Higher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Keynote speech, UNESCO Forum in Higher Education, Research and knowledge, Seoul Korea, 33-38.

“

각 대학이 특성화를 추구함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획일화된 서열화에 의한 일류대학 개념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다원화되고 특화된 ‘유일한 대학’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

다섯째, 대학특성화는 전략 여부에 따라서 개별대학의 과제만은 아니다. 오히려 유사한 대학간, 지역대학간의 협력체계를 염두에 두어야만 성공적인 특성화가 가능하다. 예컨대 지역간 ‘특성화 컨소시엄’을 형성할 때 자원과 인적교류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자율화에 의한 자율적인 학사 운영, 자율적인 정원 책정, 자율적인 질 관리 통제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여섯째, 특성화의 과제는 단순한 내국적 관점만은 아니다. 오히려 ‘세계경쟁형 대학’에서 필요한 과제이며 세계적이고도 국제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제협력을 전제로 한 특성화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한다.

물론 근래 OECD나 UNESCO가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는 ‘고등교육 질 관리 지침’(OECD-UNESCO guideline) 등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세계적 수준의 질 관리를 염두에 두고 국가간 학점교류 및 상호인정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대학특성화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역할분담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재정 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학문 분야나 기초학문 분야 등이 바람직하고 사립대학의 경우는 이와 다른 영역

에 치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여덟째로는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간의 연계전략이나 차별화전략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대학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특성화 위주의 재구조화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위에 열거한 여덟 가지 특성화의 과제들을 전제로 하되 학령인구의 82.4%(교육인적자원부 통계)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보편 고등교육 단계 국가인 우리나라의 전략은 대중형 단계나 엘리트형 단계 국가전략과는 달라야 한다. 물론 보편고등교육 단계인 몇몇 국가의 대학 운영 체제도 전단계의 대학 체제와는 달라야 한다.

Ⅲ. 대학특성화와 구조개혁

1. 대학특성화의 개념

대학특성화의 개념은 암묵적 개념과 실질적 개념으로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암묵적 개념이 수요가 있는 전공에 치중하여 육성하는 것을 특성화개념으로 이해하였다면 실질적 개념에서는 효율성과 차별성, 그리고 경쟁력 강화 등에 치중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두 개념을 집약해 보면,

〈표 2〉 Trow의 고등교육발단단계 모형

고등교육제도의 단계	엘리트형(elite)	대중형(mass)	보편형(universal)
전체규모(해당연령 인구 중의 대학재학률)	15%까지	15~50%까지	50% 이상
해당되는 사회(예)	중국, 몽골, 아프리카 등	스웨덴, 영국을 비롯한 서구제국 등	미국, 일본, 한국, 캐나다 등
고등교육 기회	소수자의 특권	상대적 다수자의 권리	만인의 의무
대학진학 요건	계약적(가정 배경과 재능)	준계약적(일정의 제도화된 자격)	개방적(개인의 선택의사)
고등교육의 목적관	인간형성, 사회화	지식, 기능의 전달	새롭고 광범위한 경험의 제공
고등교육의 주요 기능	엘리트, 지배계급의 정신과 성격 형성	전문분화한 엘리트 양성 + 사회의 지도자층 양성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국민 육성
교육과정	고도의 구조화	구조화 + 탄력화	비구조적(단계적 학습 양식 붕괴)
교육방법 및 유형	개인지도, 사제관계 중시, 세미나제	비개별적인 강의 + 보조적 시간제, 샌드위치형 코스	통신, TV, 컴퓨터, 교육기구 등의 활용
학생의 진학 및 취학 경향	중등교육 수료 후 대학진학 중단 없이 학습하고 학위취득, 퇴학을 저조	중등교육 수료 후 진학과 일시적 취학 정지, 퇴학을 증가	입학 시기 연장, 일시적 취학정지, 성인근로학생 진학, 직업 경험자의 재입학 증가
고등교육 기관의 특색	동질성(공통의 높은 기준을 지닌 대학과 전문분화 전문학교)	다양성(다양한 수준의 고등교육기관 및 종합고등교육기관)	극도의 다양성(공통의 일정 수준 상실)
고등교육 기관의 규모	학생 수 2000~3000명	학생, 교직원 수 3만~4만명(학문공동체 보다는 두뇌의 도시)	학생 수는 무제한적
사회와 대학의 경계	명확한 구분, 폐쇄적인 대학	상대적으로 희박한 개방된 대학	경계구분의 소멸대학과 사회와의 일체
최종권력의 소재와 의사결정의 주체	소규모의 엘리트 집단	엘리트 집단 + 이익 집단 + 정치 집단	일반 대중
학생선발원리	중등교육의 성적과 시험에 의한 선발(능력주의)	능력주의 + 개인의 교육기회 균등화 원리	만인을 위한 교육보장 + 집단으로서의 달성 수준 균등화
대학관리자	아마추어 대학인의 겸임	전임화된 대학인 + 거대한 관료조직	관리전문직
대학 내부 운영 형태	원로 교수에 의한 과두 지배	원로 교수 + 적은 수의 교원과 학생이 참여한 민주적 지배	학내 합의의 붕괴와 학외자에 의한 지배가 가능

* 출처 : 이현청(1997), pp.114-115

- 기존의 암묵적 개념
 - 경쟁력 없는 전공들도 잡화점식으로 운영하면서, 동시에 다른 대학보다 소위 '잘나가는 또는 잘 팔리는 전공' 만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가시적으로 대학을 대표하게 함.
- 실질적 개념
 - 전제 : 대학간의 중복적인 투자와 출혈적인 경쟁관계 타파
 - 목적 : 경쟁력 극대화를 통한 대학 고유의 브랜드 생산
 - 속성 : 효율성, 차별성, 지역사회와의 연관성 등
 - 대상 : 교육목표, 교육과정, 경영체제, 대외관계 등
 - 방법 : 역량 결집을 통한 구조개혁

- 산업대학 특성화
- 국제전문인력 양성 등

4) 균형발전 정책

-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 기초학문보호 육성
- 공과대학 중점지원 등

그리고 현행 대학 구조개혁정책과 관련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개별 부처 정책들의 조정·통합 강화
 - 지역전략산업, 기업도시, 미래형 혁신도시 등의 개념과 연계
 - 부처별 추진 재정 지원 사업간 연계
- 양적 통·폐합과 질적 재구조화의 병행
 - 질적 재구조화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권역별로 특성 없는 거대 백화점 대학이 양산될 가능성 있음.
- 구조개혁의 유도 및 보상 대책 마련
 - 개별 대학의 재정적인 어려움
 - 구조개혁 자체에 막대한 재정 소요
 - 통·폐합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
 - 대학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구조개혁에 대한 보상 대책 필요

2. 현행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특징과 쟁점⁵⁾

문민정부 이후 대학구조개혁 관련 정책들은 대학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 등을 목표로 다음 몇 가지 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다.

- 1) 적정규모 유지 정책
 - 개별대학 내 입학정원 감축
 - 대학 간 M&A 등
- 2) 학사조직개편 정책
 - 개별대학 내 학과간 통합
 - 전문대학원 설립(의치학, 법학, 한국학 등)
 - 약대 6년제 등
- 3) 역할분담정책
 - 연구중심대학 육성
 - 산학협력중심 대학 육성

3. 대학특성화의 문제점

대학특성화와 관련된 개선해야 할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 중복 투자 및 유사 분야 특성화의 양산
 - 이공계 중심의 특성화가 중복 추진되고 있음.

5) 이현청 외(2005), 대학구조개혁의 문제점과 방향, 미발간 연구보고서

- 첨단 분야, 유망선도 분야에 집중된 특성화 추진(IT, NT, BT 중심)
- 사업 준비 부족에 따른 부실화
- 대학의 사업추진이 정부의 정책발표 이후 단기간에 진행됨.
-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기존 사업이 중도에 중단되고 새롭게 추진되기도 함.
- 시스템 미흡에 따른 효율성 저하
- 개별 재정지원사업 선정에 치중하여 대학교유의 특성화 구축이 어려움.
- 특성화 분야 이외의 분야에 대한 재구조화 미흡으로 잡화점식 체제 유지

4. 특성화에 따른 구조개혁의 기대 효과

구조개혁이나 특성화와 관련된 기대효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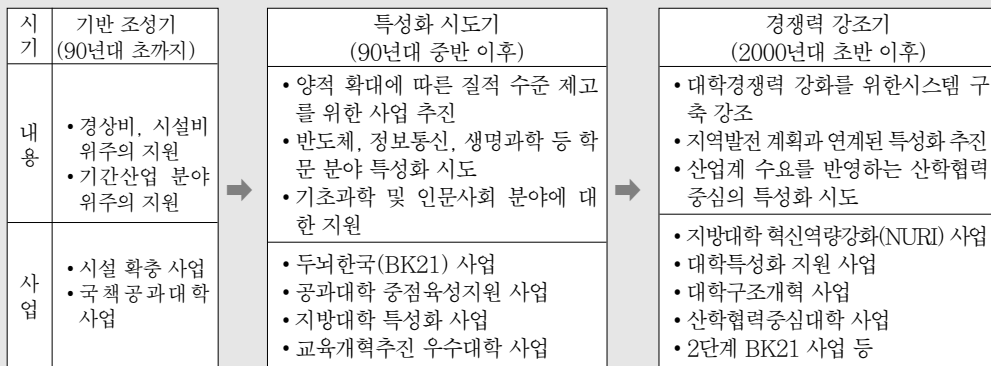
학생, 대학, 국가,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기대효과가 충족되면 무엇보다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각 대학이 특성화를 추구함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획일화된 서열화에 의한 일류대학 개념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다원화되고 특화된 '유일한 대학'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 학생 :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습자의 선택권 확대
- 대학 : 우수한 입학자원 확보 및 교육의 생산성 향상
- 국가 :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사회 : 비교육적 요인에 따른 대학 서열화 체제 완화

IV. 대학지원사업과 특성화 현황

대학지원사업과 특성화 현황을 개괄해 보면 대학지원정책에서는 1990년 초까지의 기반 조성기와 90년대 중반 이후의 특성화 시도기, 그리고 2000년 초반 이후의 경쟁력 강조기를 대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요 대학지원사업의 경우도 BK21 사업에서부터 NURI 사업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경향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1. 대학지원 정책의 변화



2. 대학지원 정책의 변화

사업 구분	사업 내용
두뇌한국21(BK21)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인력 양성 및 산학협동 강화를 통한 지역 대학 특성화 • 6개 분야에 515개 사업단, 189개 대학 참여(대학 수는 중복 계산됨) • 7년간 1조2,300억 투자(1999~2005) • 2단계 BK21 사업 준비 중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NURI)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발전전략을 토대로 산학연관이 협력한 대학별 특성화 및 우수 인력 양성 • 지역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11개 사업단, 112개 대학 참여 • 5년간 1조4,200억 투자(2004~2008)
대학특성화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대학의 특성화 추진을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 • 비교우위 분야의 특성화 추진을 적극 유도하여 대학 경쟁력 제고 및 우수인재 양성 • 학교규모에 따라 자유과제 및 지정과제에 27개 대학 선정 • 4년간 2,400억 지원 예정(2004~2007)
대학구조개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간 통합 및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 연간 800억(2005년부터 2~4년간 지원 예정)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할 수 있는 산학협력중심대학 선정 육성 • 13개 대학 선정 • 5년간 2,000억 지원 예정(2004~2008)
지역혁신특성화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요소 연계 지원 • 22개 대학이 시범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 • 6년간 2,820억 지원 예정(2004~2009)

V. 대학특성화 전략

마지막으로 대학특성화 전략과 관련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본원칙이나 재구조화 모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1. 특성화 추진의 기본 원칙

- 원칙 1. 자율경쟁 체제 정착 : 대학의 선의의 경쟁 유도
- 원칙 2. 국가와 대학의 역할 분담 : 국가의 개입이 요청되는 최소한의 분야를 제

외하고는 대학 자율에 위임

- 원칙 3. 대학간의 역할 분담 : 국립-사립, 수도권-지방, 대학교-전문대학, 일반대-산업대 간의 역할 분담
- 원칙 4. 자원배분정책의 통합 : 개별 부처 특성화 지원 정책의 연계, 조정, 통합
- 원칙 5. 재정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마련 : 사전-중간-사후 평가를 통한 책무성 고취
- 원칙 6. 산학연관 협력 강화 : 산업체,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 체제 구축

2. 특성화 추진을 위한 재구조화 모형

특성화를 위해 개별 대학을 재구조화함에 있어서는 특성화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의 모형들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 모형 1. 단일 기관형 : 단일 대학 내의 전공, 학과, 단과대학 간의 재구조화
- 모형 2. 지역 거점형 : 지역 내 대학들 간의 재구조화
- 모형 3. 전국단위 컨소시엄형 : 전국의 관련 대학들 간의 재구조화
- 모형 4. 수도권-비수도권 연결형 :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재구조화
- 모형 5. 십자형(방사형) : 거점 대학과 인근 대학들 간의 재구조화
- 모형 6. 국제통합형 :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의 재구조화

3. 특성화를 위한 철학

첫째, 모든 대학, 모든 학생, 모든 부모, 모든 지역이 함께 스타가 되는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가능한한 모든 대학의 특성화 전략이 달라야 하고 개별대학 차원에서는 타대학들과 다른 모습, 다른 영역, 다른 전략에 의한 특성화가 이루어지는 '블루오션(blue ocean) 특성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적인 안목에서는 불가피하게 타국가의 대학들과 같은 영역을 경쟁해야 하는 때로는 '레드오션(red ocean) 특성화' 전략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대학구성원들과의 합의를 전제로 한 '파트너 리더십(partner leadership)'을 통

한 특성화가 필요하다. 구성원들의 자발적 협력 없이는 특성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할지라도 점진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갈등에 의해 추진하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성화나 구조개혁은 생각처럼, 그리고 이상처럼 간단하거나 쉽지 않은 개혁이기 때문이다.

셋째, 특성화는 '특성화를 위한, 특성화에 의한, 특성화의 특성화'라는 의미를 지닌다. 특성화된 영역의 클러스터이기도 하고 특성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특성화 마인드를 통한 특성화 구현 등 모두가 특성화를 위한 참여자가 될 때 대학구조개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이현청

한양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남일리노이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및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산대학교 교수, 남일리노이대학교와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UMAP(아·태 지역 고등교육협력기구) 의장, CHEA(미국평가인정기구) 국제이사, 세계대학협의회(IAU) Higher Education Policy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학습사회』, 『교육사회학』, 『21세기를 대비한 대학의 생존 전략』, 『학습하는 사회』, 『21세기와 함께하는 대학』 외 다수가 있다.